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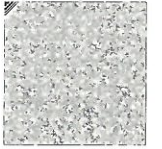
# 시온 주보

제2329호 2021년 2월 28일(나해)

사순 제2주일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당송** | 시편 27(26),8.9 참조

주님, 당신 얼굴을 찾으라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제1독서** | 창세 22,1-2.9ㄱ.10-13.15-18

**화답송** | 시편 116(114-115),10과 15.16-17.18-19ㄱ.ㄷ(◎ 9)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 “나 참으로 비참하구나.” 되뇌면서도 나는 믿었네.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

○ 아, 주님, 저는 당신의 종.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당신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

○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주님의 집 앞뜰에서,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

**제2독서** | 로마 8,31ㄴ-34

**복음환호송**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 마르 9,2-10

**영성체송** | 마태 17,5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광희 베드로 신부 |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 ‘산’, 거룩한 변화의 삶으로의 초대

동료 신부님들과 ‘삼성산 성지’에서 영성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새벽 미사까지 마치고 나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 길게 한숨 자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그러다가도 사제들과 한 약속이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삼성산 성지를 오릅니다. 한 달 만에 만난 신부님들과 반갑게 인사한 후 성체조배를 하고 복음을 연구하여 나눕니다. 또한 사목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함께 성찰하고 식별을 합니다. 그러면 피곤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도적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며, 형제 사제들의 사목 활동에서 자극을 받고 유익한 정보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절 사제들 모임을 갖던 삼성산 성지는 저에게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회심의 장소였습니다.

사순 시기는 회개와 보속의 시기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 내어 주셨음에도(로마 8,32 참조) 우리는 자주 여러 핑계를 대며 그분의 가르침에서 멀어져 살아왔고, 그분의 사랑에서 자주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순 시기는 예수님의 수난과 고통을 묵상하고 새롭게 회심하여 부활을 살도록 다짐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 주는 산에서 그를(아브라함)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창세 22,2) 유독 산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인간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 모든 것을 섬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느님을 알게 하고, 그분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어쩌면 당신을 잠시 잊고 살아왔던 아브라함이 하느님 당신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주님께서 일러주신 산은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회심의 장소였습니다.

복음에서도 산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마르 9,2) 이 산에서 예수님은 모습이 변하셨다고 복음은 전합니다. 그분의 옷은 새하얗게 빛나고, 그분은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마르 9,3-4 참조). 복음은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제자들도 변화되었음을 알려 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제자들 역시 이 산에서 회심을 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마르 9,5)

사순 시기에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산으로 부르시듯 우리를 부르십니다. 회개와 거룩한 변화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의롭게 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로마 8,33)



로포텐 노르웨이

그때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마르 9,7)

홀로 파도를 맞고 있는 바위 뒤로 아스라이 수평선이 보입니다. 바위의 당당함이 마치 하느님의 권능을 보는 듯합니다. 세상 어느 한 곳 하느님의 사랑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음을 믿기에, 낮은 바다에서 만난 신비로운 풍광 속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는 하느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주님 말씀만을 따르며 살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이복희 릿다 | 가톨릭사진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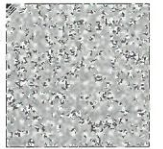
## | 사랑이란...

사진가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후 책이나 영화에서만 보던 장소를 직접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은 큰 복이었습니다. 그 걸음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세상은 넓고 갈 곳도 많지만, 사람은 모두 똑같다!'입니다. 피부, 언어, 관습 그리고 종교가 다를지언정 약속 시간이 늦어지면 짜증 나고, 배고프면 예민해지고, 힘들면 '헉헉'거리고, 졸리면 잠을 자지요. 글로벌 시대에 다양한 여행을 통해서 우리 모두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그들은 나와 다른 이방인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아주 먼 곳으로,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 속으로 돌려보내집니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도시 페샤와르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 소녀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12살 소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간 난민들에게 전쟁이 끝났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야 할 고향은 아직도 탈레반의 세력권 아래 있는 곳이라서 돌아가면 학교에 다닐 수 없고, 책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여자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에 혼자 다니지도 못하며, 여럿이 모여 다니더라도 온몸뿐 아니라 얼굴까지 가리고 다녀야 합니다. 물론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폭정을 일삼는 세력 아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미래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어둠이었고, 그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갑에서 푼돈 몇 푼을 꺼내 그 아이의 아빠에게 주면서 인터뷰에 감사를 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와 아빠는 제 돈을 거절하고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기쁘다. 제발 우리의 이야기를 바깥 세상에 전해 달라. 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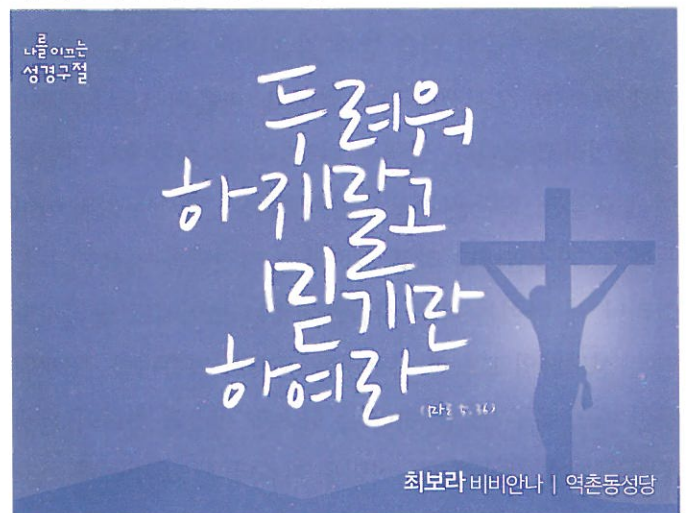
유별남 레오폴도 | 사진가



한 사랑의 마음으로 너를 위해 신께 기도하겠다.'

진정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오히려 저를 위해 기도해주겠다고 말하는 순간, 자신의 안위가 위태했을 때 세상을 위해 기도하셨던 분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소녀와 아빠의 불안과 공포 속 표정이 제 가슴에 아프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에는 공포에 떠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떠나면 저 타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곳곳에도, 부디 그들을 사랑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달궈지는 이유는 가장 낮은 데서 스스로 사랑을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은 인종과 종교와 성별에 상관없는 정의(正義)의 사랑입니다. 모두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다들 결심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정향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실천할 때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루카 10,27)



‘파티마의 기적 (Fatima)’

# ‘믿음’이 곧 기적입니다

2020년 감독\_마코 폰테코보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기적’을 바랍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는 불가능한 일이 마치 꿈처럼 이루어져 내 삶을, 아니면 세상을 바꿔주면 얼마나 좋을까...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더욱 간절하지요. 그러나 희망과 행운만으로 기적은 결코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적은 신이 아닌 사람이 만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가사의하다고 말하는 일들도 결국 인간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의 무엇으로 그것을 만들까요. 대단한 초능력이 아닙니다. 영화 <파티마의 기적>은 ‘진실한 마음’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가톨릭 신자라면 알고 있는, 교황청도 공식 인정한 104년 전(1917년)의 이야기입니다. 포르투갈의 파티마에 사는 열살 소녀 루치아(스테파니 길 뵘)와 그의 사촌인 여덟 살 소년 프란치스코, 일곱 살 소녀 히야친타가 들판에서 양치기를 하다가 성모님을 만나지요.

누구도 아이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왜 너한테 (성모님이) 오시겠니”라고 말하고, 마을의 신부는 ‘악마의 짓’이라고 합니다. 당국은 전시(1차 대전) 상황에서 사람들이 동요할까, 교단은 종교 탄압의 빌미가 될까 두려워 아이들에게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라는 거짓말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세 아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성모님의 모습과 목소리를 끝까지 믿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묵주기도를 하라”는 약속과 세상의 평화와 전쟁 종식을 위해 찾아왔다는 비밀을 지킵니다. 그 믿음과 기도는 7만 군중이 목격한 ‘태양의 기적’을 낳고, 성모님의 약속

대로 더 이상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되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세 아이에게 믿음은 무엇이였을까요. 훗날 노년의 루치아 수녀는 그날의 성모 발현에 회의적인 니콜스 교수(하비 케이틀 뵘)에게 “이해의 끝에서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믿음이 아닌) 진실을 향한 과학적 탐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반박하는 교수에게 루치아 수녀는 “믿음이 진실탐구가 아니면 뭐죠”라고 되묻습니다.



하느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는 그 믿음이 니콜스 교수처럼 ‘불가해한, 비이성적인 희망을 낳는 진실’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도 인정했듯이 불가해한 일이라고 모두 초월적인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영화에서 두 다리를 전혀 못 쓰는 소년을 걷게 만든 것은 성모님이 아닙니다. “나를 믿기 시작하면 치유될 것”이라고 말한 성모님을 믿은 소

녀 자신이었습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자를 구원한 것은 믿음이었고, 눈먼 두 사람 역시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그 믿음대로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마태 9).

평양교구장서리이신 염수정 추기경님께서 북한교회를 티 없으신 성심의 파티마 성모님께 봉헌해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파티마의 기적>은 이렇게 믿음이 곧 기적이며, 아인슈타인이 말한 인생을 사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기적이 없다는 듯 살지 말고, 모든 것이 기적인 듯 살아가라”라고 말해줍니다.

이대현 요나 | 국민대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일

3월 1일(월)에 한국 천주교회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사제이자 첫 신학생인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1821~1861)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를 기리고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2020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오늘 2월 28일(사순 제2주일)에는 한국의 모든 본당에서 최양업 신부의 시복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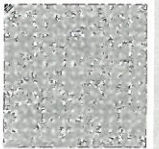
###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2021년 2월 8일)

- 1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총무, 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 총무로 남재현 티모테오 신부(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홍보국장) 인천교구, 2003년 사제 수품)를 임명.
- 2 주교회의 복음선교위원회 총무로 유희석 안드레아 신부(수원교구, 1993년 사제 수품)를 임명.
- 3 주교회의 해외선교·교포사목위원회 총무로 김동원 베드로 신부(서울대교구, 2000년 사제 수품)를 임명.
- 4 최근에 발생한 경주 월성 핵발전소 부지 삼중수소 누출 사고에 대한 우려와 입장을 밝히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생태환경위원회의 공동 성명서를 승인.
- 5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정화 처리 이후의 삼중수소 함유수의 해양 방출을 반대하는 일본가톨릭정의외평화협의회,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생태환경위원회의 공동 성명서를 일본에서도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듣고 이를 승인.
- 6 주교회의의 2021년 춘계 정기총회(3월 8일~12일) 주교 연수 주제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새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을 선정.
- 7 자의 교서 『은사의 진정성』(Authenticum Charismatis)에 따라 개정된 교회법 제579조 검토, 『한국 천주교회 교리교육 지침』(개정판) 심의,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개정안) 일부(제1-177조) 심의, 『축복 예식』의 출판 교령 심의, '세계 이민의 날' 명칭 변경에 관한 논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목적 배려에 관한 논의,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 추진 관련 보고, 주교회의 엠마오연수원의 2021년 단기 사제 피정 프로그램 보고, 2021년 주교 현장 체험 프로그램 계획 보고 등 주교회의의 2021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 목록을 확정.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 1 밤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바친 후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바칩니다.
- 2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가톨릭기도서 109쪽)를 함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13년 3월6일 홍병철 루카 신부(39세)
- 1954년 3월5일 김인상 야고보 신부(61세)
- 1975년 3월5일 황정수 요셉 신부(85세)
- 2010년 3월1일 김옥균 바오로 주교(85세)
- 2016년 3월7일 김병일 요셉 신부(82세)



### 2021년 서울주보 <사랑의 손길> 신청 단체 접수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과 (재)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서울주보 <사랑의 손길>을 통해 매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외 가톨릭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합니다.

2021년 하반기에 지원할 사회복지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 - 공지사항 - 2021 서울주보 <사랑의 손길> '수혜단체 신청 안내'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4월 9일(금)까지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 obos.or.kr  
이메일: obos@obos.or.kr | 문의: 02)727-2263

### 교구정일림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우원경 개인전: 1전시실  
김동준 · 김다은 십자가전: 2, 3전시실  
전시일정: 3월3일(수)~8일(월)

### 순교자현양 신심미사

때: 매일 첫째(화) 3월2일 · 4월6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미사 참석 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절두산 순교성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됩니다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 성주간 전례 교육

주제: 성주간 전례의 의미와 실무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를 통해 동영상 강의를 제공합니다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 이야기를 나누는 마음포차 OPEN

내용: 신부와 마음축제 예술가에게 털어놓는 1:1 고민상담소  
때: 2월19일(금)~3월27일(토) 12시30분~14시(30분씩 선택 / 주 2회)  
곳: 명동대성당 지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자리  
문의: 02)727-2497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전화 신청)

### 사목국 '성서못자리' 2021 전반기 청년성서못자리 강좌

내용: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성서못자리 입문)  
때, 곳: 3월10일~6월23일 매주(수) 19시30분~21시30분(15주), 명동대성당 내 범우관 408호  
강사: 이주형 신부(서울대교구 사목국 성서못자리)  
회비: 4만원(교재비 포함) / 접수방법: 인터넷 선착순 접수(접수링크: http://samok.or.kr/bibleseedbed/)  
문의: 02)727-2379(bible@seoul.catholic.kr)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강의를 불가할 시 zoom 사용한 비대면 강의로 대체됩니다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1259차 미사(내 마음의 복된 분당 갖기 미사)

때, 곳: 3월2일(화) 오후 7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분당: 평양교구 안주 본당, 정주 본당  
미사 후에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분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 제38기 천주교 생태영성학교(온라인 교육)

대상: 창조질서보전에 관심있는 신자, 수도자, 성직자  
때: 3월16일~5월11일 매주(화) 19시30분~21시(총 9주간)  
방법: 강의, 나눔, 과제 / 회비: 5만원  
신청: 3월9일까지(선착순 80명)  
웹사이트(ecocatholic.org)로 신청  
교육내용: 회칙 『찬미받으소서』, 생태계 위기의 상황, 창조질서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 생태 위기의 근원들과 통합생태론, 생태계 위기 극복을 위한 접근법과 행동방식, 생태영성과 생태교육, 하늘땅물빛 등 본당 내 실천 안내, 생태 문명  
문의: 02)727-2283, 2272(ecocatholic@hanmail.net)

## 인준단체 알림

### 모임

**비대면 생활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돌개생활피정' / 최영민(예수회)

**신·구약 성경통독(상지피정)**  
때: 4월9일~17일(8박9일) / 문의: 010-9401-9374

**복음화학교 기도모임**  
때, 곳: 3월7일 14시~18시, 가톨릭회관 7층  
문의: 02)753-8765 새천년복음화학교

**신·구약 성경 완독 피정(8박9일)**  
때: 3월12일(금)~20일(토)  
문의: 010-3340-0201 도미니코 피정의집(형성)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 대상: 20세~39세  
때, 곳: 3월6일(토) 17시(미사), 가톨릭회관 1층 경당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성지순례 피정	3월15일~18일, 3월21일~24일, 4월5일~8일, 4월11일~14일, 4월21일~24일
자연순례 피정	3월5일~7일, 3월27일~29일

### 교육

**묵주·반지·목걸이 교육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cafe.naver.com/cmc04) 참조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내용: 커피의 전 과정(에스프레소·라떼아트·홈바리스타·창업·로스팅·자격증(주1회·12주))  
문의: 010-9040-8306(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예수님께 인생을 묻다' 평신도 영성강좌(한국CLC)**  
때: 4월8일~5월13일 매주(목) 19시30분~21시30분(6주)  
곳: 한국CLC(전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회비: 8만원(온라인 6만원, 청년할인 50%) / 02)333-9898

4월8일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4월15일	예수님께 인생을 묻다
4월22일	오병이어, 사랑의 힘
4월29일	공동체로 초대받은 우리
5월6일	세상으로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
5월13일	사랑의 질서와 영적훈련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30~40대 청장년을 위한 신약 통독**  
때: 4월~12월 (일) 30대 (토) 40대 16시~18시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 회비: 3개월 10만원  
지도: 김성태 신부(프란치스코회) / 010-4598-6912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정규입학 모집**  
기숙사 학교 / 기간: 단기(1년)·장기(1년 이상)  
대상: 초5~고1 /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 내일이룸학교  
때: 2월~12월 / 대상: 15세~24세 남성(학교박청소년)  
최근 5년 평균취업률 89.2% / 문의: 02)828-3600  
혜택: 교육비·기숙사 무료, 수당 지급

**가톨릭대 평생교육원 미술심리지도사 모집(비대면 강의)**  
회비: 미술심리지도사 2급(1~3단계) 각 30만원(3단계 40만원), 미술심리지도사 1급 60만원

2급	3월15일~5월24일 매주(월)	문의:
1급	3월15일~6월14일 매주(월)	02)2164-6587

**예수회센터 강좌(3월 개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영신수련 정기 강좌	매주(수) 10시~12시	이규성 신부
여성 심리과 영성	매주(수) 10시~12시	홍기영 교수
영여성경 나눔	매주(목) 18시15분~19시15분반, 19시30분~20시30분반	Kister 신부
가톨릭 사회교리	매주(금) 14시~16시	전주희 수사
'나'를 찾아가는 화목한 가정	첫째·셋째주 (토) 16시~18시	손엘디, 배카타라나부부

**2021년 1학기 '여정' 성경공부 / 문의: 010-7194-3780**  
때: 3월8일~6월11일, 비대면-줌(zoom) 이용 / 회비: 6만원  
접수: 3월2일~3일 / 예수회까리마수녀회 여성성서교육관(주최)

	10시~12시	14시30분~16시30분	20시~22시
3월8일(일)	가톨릭서간 요한묵시록	.	가톨릭서간 요한묵시록
3월9일(화)	시서와 지혜서	.	시서와 지혜서
3월10일(수)	마르코 복음서	.	마르코 복음서
3월11일(목)	마태오 복음서	마태오 복음서	.
3월12일(금)	역사서 1	역사서 1	.

### 미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3월5일(금) 14시~16시 / 지도: 양창우 신부  
곳: 가톨릭회관(전철 4호선 명동역) / 문의: 02)929-2977  
코로나 상황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3월3일(수)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예수성심전교수도회**  
모든 미사 코로나19로 인해 신청자만 참석 가능  
1) 첫금요일 예수성심 신심미사  
때: 3월5일(금) 19시30분(성시간 18시30분)  
곳: 예수성심전교수도회 본원(서울 세검정)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2) 첫토요일 성모산심미사  
때, 곳: 3월6일(토) 11시, 예수성심의 어머니성당  
3월3일(수)까지 예약 필수 / 문의: 010-4550-6955

### 인내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응암동성당 '요셉 추모와 축복의 벽' 패 신청**  
추모패·축복패 접수 / 사용 기한: 무기한(단, 20년 이후 재건축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대상: 고인(추모패), 세상을 살고 있는 교우·비신자 등(축복패) / 사용료: 1인패 100만원, 2인패 150만원  
혜택: 명절, 위령의날, 매일 합동 위령미사, 생미사 봉헌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 문의 / 문의: 02)2021-2700

###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상담 가능  
심층적 자기이해와 가족관계 성장 3월8일~5월10일 매주(월) 오전 10시~12시(10주)  
전문심리치료 가족(부부), 불안, 우울, 분노, 강박행동, 대인관계

###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자아의 통합과 영성	목요반-강의 3월4일~6월17일 매주(목) 10시~12시, 그룹훈련 기본과정-13시~15시, 금요반-3월5일~6월18일 매주(금) 비대면 온라인 강의
생활속의 심리학	자기이해를 위한 심리학 기초이론-3월4일~4월15일 매주(목) 7주 과정
전문 심리상담	가족치료, 개인, 부부, 종합심리검사 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

### 직원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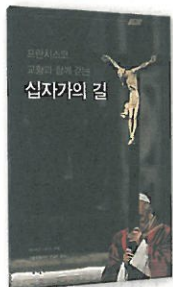
**수궁동성당 방호원(계약직) 1명 모집 / 문의: 02)2617-8183**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으로 시설물 관리, 영선 기능자 / 서류 심사 후 면접(개별 통보)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에서 다운),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교적 사본  
3월13일(토)까지 방문·우편(우 08257,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1275) 및 이메일(dtlahs@seoul.catholic.kr) 접수

수도회 상소모임	때	곳	문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3월7일(일) 9시30분~13시	본부(돈암동,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010-9937-0901(korvocation@columban.or.kr)
성 마리아 재속회	수시	도봉구 우이천로 304	02)980-0385, 010-6462-0385
성모 승천 수도회	수시	본원(광주광역시)	010-3771-5098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수시	본원 및 온라인	010-4241-1210 성소 담당자
예수회	3월6일(토)	한국 관구본부	010-8498-9593
한국외방선교회	3월7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사순 시기 읽기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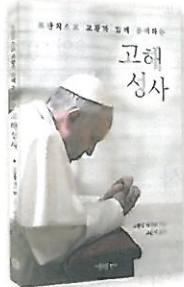


###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시간

데이비드 나이트 지음 | 2,500원

십자가의 길을 바치며 우리는 때로 예수님의 고통에만 초점을 둘 때가 많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면서도 우리의 약함, 고통, 실패에 머물지 않고 그 너머의 희망과 용기의 마음이 샘솟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걸으신 길을 밝혀 보세요.



###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준비하는 고해성사

나를 기다리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향해 나아가세요

교황청 내사원 지음 | 10,000원

고해성사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시선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사입니다. 이 책은 고해성사를 어려워하는 신자들이 하느님과의 만남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고해성사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갈 용기를 청해 보세요.



### 40일 성경 기도 노트

하느님의 손길을 청하는 40일의 간절한 기도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지음  
12,000원

40일간 성경과 《준주성범》을 읽고 쓰며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의 기도예 정성을 더할 수 있는 기도 노트입니다. 필사를 통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이번 사순 시기에는 이 노트에 나의 기도 지향과 묵상을 기록하며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 내 마음의 주치의(개정)

인류 최고의 영성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안셀름 그린 지음  
15,000원

성경 속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치유되어 변화된 삶으로 나아갑니다. 안셀름 그린 신부는 인류 최고의 영성가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에 주목하여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묵상함으로써 우리 마음속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 신앙을 바로 세우는 사순 시기, 40일의 여정을 함께 걸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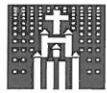
이번 사순 시기의 은총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여러분을 향한 것입니다. 사순 시기를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묵상 영상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영성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YouTube 가톨릭북 채널**

검색창에서 '가톨릭북' 검색 또는 QR코드에서 연결됩니다.

제2171호(성 바오로 사도 개종 축일)



#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시흥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지병국(바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디),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체신심미사	매 월 첫째 금요일 오전 10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 십자가의 길

일시 : 2월 19일(금)~4월 2일(금)  
매 주 금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 ◎ 청년 십자가의 길

일시 : 3월 7일(주일)~3월 28일(주일)  
매 주일 오후 6시 청년미사 후

### ◎ 주일학교 개학미사

-초등부 : 3월 6일(토) 오후 3시  
-반디/중고등부 : 3월 7일(주일) 오전 10시 30분

### ◎ 예비신자 입교식

일시 : 3월 14일(주일) 11시 미사

교리반	교리 시작 날짜	장소
수요반	3월 17일(수) 오후 8시~	교육관
주일반	3월 21일(주일) 오전 9시~	304호

※ 예비신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더불어 교리재교육이 필요한 교우들도 함께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축복식·어린이 축복식

일시 : 3월 7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 ◎ 유아세례 : 3월 7일(주일) 오후 4시 30분

### ◎ 초등부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봉사시간 : 매주 토요일 12시  
문의 : 010-9224-3330

### ◎ 부활상본 만들기

이번 사순시기동안 묵상과 기도를 통해 '성구'를 정해서 제출해 주시면 올 한 해 동안(또는 평생) 길라잡이 말씀으로 지니실 수 있도록 부활 상본을 만들어 드립니다.

신·구약 상관없이 하나의 구절만 정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메모지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 제출기한 : 3월 21일(주일)까지 사무실

### ◎ 교무금 책정 현황 (2021. 2. 21.)

총세대	책정 세대	미책정 세대	2020년 책정율	2020년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210	569	1,641	45.3%	42.9%	25.7%	22.6%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 오늘은 리모델링 2차헌금이 있습니다.

### ◎ 리모델링 기금 (2월 15일~21일)

누 계 ..... 881,095,781 원

### ◎ 연령회 감사헌금

고 서영숙 율리아 상가 ..... 이십만원

### ◎ 감사헌금 (2월 15일~21일)

김영민 ..... 삼십만원      진영문 ..... 일십만원  
 진현주 ..... 오만원      진현수 ..... 오만원  
 이미진 ..... 오만원      양혜숙 ..... 일십만원  
 정수진 ..... 칠만원      익 명 ..... 일백삼십육만원  
 익 명 ..... 삼만원      김영숙아녜스 ..... 일십만원  
 진은희 ..... 이십만원      박소영테레사 ..... 일십만원  
 조진선 ..... 일십만원      익 명 ..... 일십만원  
 김정자엘리사벳 ..... 오만원      김동영 ..... 일십만원  
 정숙희 ..... 오만원

### ◎ 우리들의 정성(사순 제1주일)

교무금 ..... 14,940,000 원  
 주일헌금 ..... 3,998,000 원  
 리모델링 2차헌금 ..... 1,476,000 원